

2024년 4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 대전MBC

1. 회의개최

연번	일시	장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국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1	'24.4.30.	대전MBC 4층 회의실 (대면회의)	7/10	4	2	13	○		

○ 회의 참석자 명단

① 시청자위원 명단

손병우 위원장, 박주영 위원, 김정동 위원, 장래숙 위원,
이인복 위원, 윤지석 위원, 이진희 위원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 : 진종재 사장, 최기웅 보도국장
이상욱 편성국장, 정수진 인프라국장
- 경영진 외 : 이은표 간사, 이재근 실무담당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9	2	-	1	12	-	12

나. 사업자 반영

구분	수용	의견참고	반론	합계
건수	12	-	-	12

다. 전월(3월)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보도	<세종갑 공천취소 시민인터뷰 관련> 시민단체 인터뷰 대상자의 투표권을 축소시켰다는 내용은 정치적이라고 생각됨. 인터뷰 대상자의 적절성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데 추후 시민사회 상실감에 대한 보도도 다뤄주길 바람	저희가 주목한 포인트는 후보자 부실 검증이었고 시민단체 대표가 아니라서 달리 볼 수 있음. 추후 재산 관련 세종 시민사회 충격은 후속 보도할 예정임. <24. 4월 조치>	'24.3월
보도	<어른조사 보도 관련> 언론사의 여론조사 응답률을 보면 보통 10%~20%사이인데 시청자들이 대표성에 대한 의문이 들지 않도록 보도해 주었으면 함	대전MBC 여론조사 응답률은 다른 언론사보다 조금 높게 유지하고 있고, 응답률과 개요는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보도뿐만 아니라 후속 보도에도 반영하고 있음. <24. 4월 조치>	'24.3월
보도	<총선 관련 정책 검증> 재외국민투표 자료에 일부 정당 공약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총선 관련 정책 검증에 대해서 지역방송에서 많이 고민해 주었으면 함.	이번 선거에서 달라지는 부분들과 지역에 따라서 주의해야 할 부분들, 투표시 유의해야 할 부분들을 보도할 예정임 <24. 4월 조치>	'24.3월
보도	<선거 보도 관련 > 선거 보도시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 주길 바람.	선거 관련 보도는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도하고 있고 지난 선거 때부터 유권자 중심으로 보도하고 하고 있음. <24. 4월 조치>	'24.3월
교양	<인생내킷 제작 방향> '인생내킷'은 첫 방송이후 자리를 많이 잡은 것 같은데 다양하고 멋지게 사는 개인과 그 일에 대해 더 많이 다뤄주길 바람	오랜 시간동안 한 분야의 전문가로 지내온 분들의 삶과 내면의 디테일을 들여다보는데 주안점을 두고 더 발굴해서 선보이도록 하겠음. <24. 4월 조치>	'24.3월
교양	<60주년 특집 레일관련 프로그램> 대전이 도시로서 정체성을 갖는데 철도가 큰 의미가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제작할지 말씀해 주시길 바람	창사 60주년 대기획으로 2부작을 준비하고 있고, 역사적으로 대전역과 대전이라는 도시가 어떻게 생겼고 대전의 정체성을 발견해 보고자 기획함<24. 4월 조치>	'24.3월
교양	<이종수 도예가 전시관 관련> 대전시에서 이종수 도예가 전시관 설립 관련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방송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람	이종수 도예가 전시관은 대전시 지역자체 1호 전시관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음. 지역방송 차원에서 캠페인 등 지원하면서 관심을 갖겠음 <24. 4월 조치>	'24.3월
교양	<공연 정보에 대한 소개> 단순한 공연 정보를 소개하는 것이 아닌 공연이 끝난 뒤 인터뷰를 통한 캠페인성 방송도 다뤄주길 바람	공연이라는 게 여러 가지 관점에서 다뤄야 하는데 제작진과 같이 예술 또는 문화 쪽 관련된 내용을 공유하고 연구하겠음. <24. 4월 조치>	'24.3월
교양	<메디컬포커스 정보 제공> 호스피스 관련한 정보를 제공할 때 보호자와 대화하는 장면으로 보여주면서 정보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음	다양성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했는데 논란의 소지가 있음. 제작진과 공유하겠고 질한 중심에서 벗어나 정보 확장성 측면에서 노력하겠음. <24. 4월 조치>	'24.3월
기타	<소년소녀합창단 관련> 제주도 소년소녀합창단이 5월에 대전 공연을 한다고 하는데 대전MBC 합창단과 연계 공연을 원한다고 함.	청소년, 어린이, 가정의 달인 5월에 여러 가지 공익적인 행사를 기획하고 있는데 유사 단체와 콜라보가 가능한지 고민하겠음. <24. 4월 조치>	'24.3월
기타 (시청자제시판)	<홈페이지 제1FM 온에어 잡음> 홈페이지 제1FM 실시간 스트리밍 음질을 올리면 노이즈가 심해서 청취에 영향을 줌.	홈페이지 온에어 제1FM 실시간 스트리밍 음질에 문제가 있어서 업데이트 완료함 <24. 3월 조치>	'24.3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청내용	조치내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2000.0 ~ 2000.0)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 (임기)
		해당사항 없음		

3.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평가기준	해당여부
2024년 4월에 집계된 시청자 불만사항 회의 전 고지	○
시청자위원 및 임원진이 함께 공유하는 온라인 대화방 개설	○

4. 기타사항

-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대전MBC 홈페이지 공개

나. 시청자위원 명단 (임기 : 위원별 상이)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문	비고 (임기)*
위원장	손병우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사)한국언론정보학회	언론단체	23.05.01~25.04.30
부위원장	박주영	대전지방변호사회 부회장	대전지방변호사회	변호사단체	23.05.01~25.04.30
위원	마정미	한남대학교 정치언론학과 교수	충청언론학회	언론단체	22.05.01~24.04.30
위원	김정동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대전참여자치 시민연대	소외계층대변	22.05.01~24.04.30
위원	박미숙	(주)비앤비컴퍼니 대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전지회	경제단체	22.05.01~24.04.30
위원	장래숙	대전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대전광역시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단체	23.05.01~25.04.30
위원	김영진	사회적협동조합혁신청 이사장	대전청년내일센터	소외계층대변	23.05.01~25.04.30
위원	이인복	원도심문화예술행동 사무국장	원도심문화예술행동	문화단체	23.05.01~25.04.30
위원	윤지석	대전광역시시의사회 부회장	대전광역시시의사회	과학기술단체	23.05.01~25.04.30
위원	이진희	대전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협회장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협회	인권단체	23.05.01~25.04.30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구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	답변내용	비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철도 관련 민자사업 보도> 철도 민자 사업은 지역에서 수익을 내기가 어려울 텐데 더 심도있게 보도에서 다뤄주길 바람	회의록 첨부	○		
보도	<노인 도박장 보도> 노인 도박에 대한 불법성을 부각하기 보다는 노인들의 놀이문화 부족에 대한 대책마련 보도를 해주었으면 함	회의록 첨부	○		
보도	<뉴스 편집 순서> 앞쪽에 사건사고를 배치하고 그 뒤에 더 중요한 인공위성 보도를 했는데 순서를 바꿔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	회의록 첨부	○		
보도	<뉴스 오프닝 인사> 뉴스 오프닝 인사 때 남성 앵커와 여성 앵커의 행동이 일치하지 않아 어색해 보임.	회의록 첨부	○		
보도	<전국 뉴스와 사건사고 보도 중복> 전국 뉴스에서 다뤄진 사건사고 뉴스를 지역뉴스에서 첫 코너로 보도해서 중복되는 느낌이 있음.	회의록 첨부	○		
보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전 보도> 공단 이전과 관련해 반대하는 쪽 입장과 이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균형 있게 다뤄주길 바람	회의록 첨부	○		
보도	<0시 축제 보도> 올해 축제기간을 9일로 늘린다고 하는데 주변 소상공인이나 교통약자 등의 의견도 다뤄주었으면 함	회의록 첨부	○		
보도	<장애인 관련 보도> 장애인 보도 초점을 우리가 그들을 위해 어떻게 환경을 바꾸고 인식을 어떻게 바꿀지에 두었으면 함	회의록 첨부	○		
보도	<대전역 등 장소 관련 보도> 대전역 노점도시라고 하는데 만남과 모임의 도시답게 모이는 성격에 맞는 장소를 방송에서 다뤄주었으면 함	회의록 첨부	○		
교양	<문화예술 관련 캠페인> 대전을 문화예술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그림을 선물함시다' 등 문화 확산 캠페인을 제작해 주었으면 함	회의록 첨부	○		
교양	<원도심 장기건축물 방송> 대전 원도심의 장기 건축물에 대한 방송을 할 때 다른 지역의 활용 및 해결 방법도 소개해 주었으면 함	회의록 첨부	○		
기타 (시청자제시판)	<청취자를 위한 세심한 배려 부탁> 낮 기온이 20도가 넘는데 한파주의보 주의사항이 라디오에 나오는데 청취자를 위한 세심한 배려 부탁함	업데이트 완료함	○		

2024년 4월 대전MBC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 일시 : 2024년 4월 30일(화) 오후 4시
- 장소 : 대전MBC 4층 대회의실

- 시청자위원회 참석자 : (총 7명)
손병우 위원장, 박주영 위원, 김정동 위원, 장래숙 위원,
이인복 위원, 윤지석 위원, 이진희 위원

- 회사 참석자 : (총 6명)
진종재 사장, 최기웅 보도국장, 이상욱 편성국장,
정수진 인프라국장, 이은표 간사, 이재근 실무담당

- 회의록 전문

이은표 간사

지금부터 4월 시청자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7분이 참석해주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4월 대전MBC 홈페이지 시청자게시판에 올라온 시청자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온 의견은 총 2건인데요. 캠페인 관련 의견 1건, 자막 오타 관련 1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그럼 정기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전MBC 신임 진종재 사장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종재 사장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특히 다 참석하지는 못하셨지만 세 분의 위원들께서 마지막 회의인데 그 동안 저희를 위해서 조언도 많이 해 주셔서 아쉬운 회의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분 위원님께 대표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4월은 아시다시피 국가적인 입장에서 중요한 시기였는데요. 지역사회에 일꾼을 창출하는 22대 총선이 있었어요. 저희도 나름대로 숨 가쁘게 달려왔던 총선 보도를 마무리하고 총선 결과가 가지는 의미와 과제에 대해서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총선 보도 전반에서 나름대로 객관성이나 저희가 지켜야 공정성 또는 중립성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위원들께서 보시기에는 또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위원들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고견을 많이 듣고 싶고 기타 의견들도 많이 말씀해 주시면 귀담아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표 간사

이번에는 시청자위원을 대표해서 손 위원장님께서 인사말씀 해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병우 위원장

이번 달에 지난 2년간 같이 시청자 위원으로 활동해 주신 세 분의 위원님들의 임기가 끝나서 보내드리는 아쉬운 자리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알찬 시청자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4월 시청자위원회 정기회의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동 위원님께서 간단한 소회의 말씀과 모니터링 해주신 내용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동 위원

뉴스 관련해서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한 달 동안 총선 보도하느라 모든 부서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보도의 내용이라든지 균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부분에 있어서는 축하를 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건 총선이 끝나고 각 후보들이 했던 공약들 그리고 정부 정책들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철도 관련된 주요 이슈들이 두 개나 이번 달에 나왔더라고요. 하나는 철도 지하화와 관련된 내용이고 하나는 CTX 관련된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이후에 다뤄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CTX 같은 경우는 원래 계획과 다르게 변경됐고 무엇보다도 민간에서 먼저 제안해서 투자를 시작하느냐 마냐 아직 정해진 건 하나도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유성 복합 터미널 사례를 봐도 알지만 민자 사업은 쉽지 않거든요. 특히 철도 관련해서는 처음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어떻게 보면 과도한 장밋빛 청사진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더 심도 있게 짚어야 될 것 같고요. 지하화는 이번 총선에서도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두 당 모두 주요 정책 1번, 2번으로 다 냈던 공약이기도 하거든요.

대전이 철도의 도시이기도 하고 호남선, 경부선과 다 얽여 있기도 한데 저희도 모니터링을 해봤지만 실제 실현이 가능하냐는 얘기를 한 적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철도 라인을 개발해서 수익을 낸다는 건 서울 일부 지역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지역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사업에 가깝기 때문에 정부에서 설명회도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도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느 새 벌써 2년이 다 지났네요. 밖에서 보다가 들어와서 보니까 어떻게 취재를 하고 어떻게

보도를 하고 어떤 고민을 갖고 움직이시는지 조금 더 알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시청자 위원회는 끝나지만 계속 모니터링하고 우리 지역 MBC가 어떤 방송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드는지 좀 더 주의 깊게 보는 그 습관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우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래속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장래속 위원

이번 달에는 <인생 내컷>을 열심히 봤어요. 그 중에서 루아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 김남진 예술감독님 편을 빠짐없이 보면서 너무 감동적이었고 울컥하는 부분이 몇 번 있었어요. <인생 내컷>중에서도 가장 감동 깊게 보았습니다.

뉴스 관련해서는 사회 문제를 다룬 건데 도심속의 노인 도박장 단속에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보도를 봤거든요. 우리가 사회 문제를 다룰 때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이 뉴스 내용을 보면 판돈을 버는 도박장과 중요한 건 대부분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이거든요. 도박에 대한 부각보다도 놀이문화가 부족하다는 부분에 맞춰서 보도를 했으면 그 문제점을 보고 대책 방안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노인들의 놀이문화 부족에 대한 대책 마련 뉴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9일 뉴스를 보면, 택배차 관행적인 지상 운행, 선관위의 청구 집중 조사, 배달 기사 폭행, 의대생 수업 거부 등 앞쪽에 사건사고를 많이 다뤄주시고 나서 위성 쏘아올린 게 그 다음에 나왔거든요. 위성 쏘아올린 것이 저한테는 더 자부심이였거든요. 다 필요한 내용이긴 한데 개인적으로 위성 쏘아올린 걸 조금 위에 올려서 순서를 바꿨으면 뉴스를 보는 입장에서 자부심이 먼저 생겼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대생 수업 거부 장기화에 대한 문제점을 다루면서 정원에 대한 얘기만 다뤄주셨거든요. 다른 언론사는 학원가나 의대 지망 학생들의 목소리도 인터뷰를 따서 같이 다뤄줬더라고요. 이런 시민의 목소리와 의대에 관련된 인터뷰를 넣어주니까 더 조금 풍성해 보였고 궁금한 점이 해소되더라고요. 다음에는 추가해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손병우 위원장

알찬 내용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박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박주영 위원님

뉴스데스크를 봤는데요. 일단 눈에 띄었던 게 오프닝 인사라고 해야 되나요? 두 분이 시작하실 때 안녕하세요 하면서 여자 앵커분은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남자 앵커분은 원고를 읽고 계시니까 두 분이 부자연스럽고 어색해 보였어요. 두 분이 동시에 인사를 하고 시작을 하든지

뭔가 통일감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조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장래속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보도 순서를 보면서 어떤 원칙을 갖고 하시나 궁금하긴 했었습니다. 어떨 때는 사건 사고가 먼저 나오고 날씨가 중간에 나오면서 그 다음에 대전에 어떤 특이한 게 나오고 하는데 저의 고정 인식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날씨가 갑자기 중간에 나오니까 뉴스가 끝난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뒷부분은 그렇게 가볍지 않은 내용 같은데 또 다뤄지니까 산만하다는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사건 사고와 관련된 건 전국 방송에서 이미 한번 다뤄질 수 있는데 그게 대전MBC에서도 첫 코너로 나오면 꼭 보시던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복됐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서 대전만의 특색 있는 보도를 먼저 해 주시는 게 분산 효과가 있지 아닐까 일반인으로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화제의 당선인 이제는 실천이다’ 코너는 선거 끝나고 난 직후에 공약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시는 거라서 참 좋았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그냥 하시는 말들이 아니라 당선된 이후에 다시 한 번 공약을 짚어주고 다짐을 받는 것처럼 보여서 여야를 떠나 전체적인 공약을 다루는 부분이라서 좋게 다가왔고요.

전자통신연구원의 특이한 역사관과 실감나는 전자기술 관련 보도, 또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장애물을 잘 피하는 전기자동차 보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대전에 있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접할 수 있는 보도가 아닌가 싶어서 좋았고요.

노인 도박 관련해서는 노인 문제가 커지는 것에 대해서 아까 도박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저는 원인에 대해서도 다른 날 보도하시는 걸 보긴 했어요. 여가가 좀 부족하다고. 바로 다음 날부터 언급을 하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하고 또 산재 처리가 안 되는 문제점들을 언급해 주시는 것도 전반적으로 그 계층에서 해당되는 문제를 짚어주셔서 좋았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전 관련해서는 저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데요. 이전이 왜 그렇게 안 좋은 것이지 라는 의아심이 들었던 것에 비해 이전을 반대한다는 보도만 5~6번 계속 나왔던 것 같거든요. 4월 17일인가 18일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그 뒤주까지 계속 한 번씩 언급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까지 자주 언급될 만큼 중요한 문제인가? 타 지역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대전 내에서 움직이는 건데 왜 안 좋은 건지 이렇게 자주 보도할 만한 큰 이슈인가 약간 저는 의아한 생각은 들었습니다.

손병우 위원장

에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인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이인복 위원

연중캠페인 <당신이 주인공입니다>에서 장애인의 날을 맞아 굉장히 시의 적절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수시아 청소년 합창단을 보여줬는데 문화예술은 직접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고 향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합창단에서 아이들이 직접 주인공이 돼서 발표하고 연습하는 모습에 집중했다면 다음에는 기회가 된다면 그런 친구들 또는 지역의 장애아들도 같이 향유할 수 있고 관람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같이 담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보고 그 공연이 너무 좋고 그걸 통해서 또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면 어떤 합창단의 발표 자체가 지역의 선한 영향력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같이 체험하고 향유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주는 부분까지 담아주시면 더욱 더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게 대전이 문화예술 도시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대전MBC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그림을 선물합시다'라는 캠페인인데 대표님 새로 오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전에 가면 정말 희한한 문화가 있다. 친한 사람이 개업을 하거나 이사를 하면 꼭 그림을 들고 가서 선물을 하는 문화가 있는데 그런 문화를 대전MBC가 캠페인으로 만들어서 작은 움직임들이 지역 내에 문화 예술을 일상으로 들여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너무나 고맙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손병우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지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윤지석 위원

<오늘M>에서 도심 장기 건축물 관련 방송을 봤는데 제가 거기에서 개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이 지어지고 중단되고 지어지고 중단되는 걸 계속 보면서 시장님이 당선될 때마다 그리고 새로운 구청장님이 당선될 때마다 해결방안을 건의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오랜만에 대전MBC에서 그것을 <오늘M>에서 다뤄줘서 참 좋았어요. 아무튼 원도심에서 가장 큰 사업인데 대전MBC에서 관심을 갖고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로서 안타까운 건 현 시장한테 이번에도 또 면죄부를 주는구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옆 대전부 청사가 342억에 매입됐거든요. 근데 저같이 그 동네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들은 대전부 청사 모형도 거의 남아 있지 않는데 저게 과연 342억짜리 건물일까 하는 의구심을 굉장히 갖고 있거든요. 200억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그 옆 건물은 돈이 없어서 못 산다고 하는 것이 원도심을 정말로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과연 다른 도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심이 있는데 광주에도 똑같은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주는 그 건물을 사서 구청으로 쓰고 경찰청이나 지구대로 쓰고 아무튼 행정건물로 쓰고 있다는 뉴스를 전 시장님이라든지 전 구청장님한테 보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번에도 아쉬웠던 점이 대전MBC에서 보도하면서 다른 도시에서는 어떻게 해결했나 하는 부분들을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우울한 소식 뒤에 이어서 '금산의 꽃길 걸으세요' 라는 코너는 좋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도 많이 세련됐던데 전에는 매거진을 할 때는 비용이 없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요즘 많이 세련돼서 참 보기 좋았었습니다.

박주영 위원님께서 소상공인지원진흥공단 이전 뉴스를 왜 많이 내보내는가 하셨는데 저는 그 원도심에서 81년도부터 대전MBC가 원도심에 있었을 때부터 시청이 떠나고 도청이 떠나고 경찰청이 떠나는 것을 계속 봤거든요. 그 마지막 남은 게 소상공인지원진흥공단이거든요. 그 분들께 식당이라든지 커피 한잔 파는 원도심 주변분들에게는 생사가 달린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박주영 위원님과 의견이 좀 다릅니다.

원도심에 장기 건축물이 아직도 흥가로 있고 제가 개업하고 있는 그 뒤쪽 은행동은 20년째 재개발이 안 되고 있거든요. 오늘 낮에도 지인과 점심 먹기 위해 같이 들어갔는데 너무 놀라더라고요. 무섭다고 하면서 오래된 흉물들을 보면서 옛날 60년대 감성이 남아 있다고 카메라를 들이대는 모습을 봤었는데 아무튼 거기가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상공인지원진흥공단 이전 반대를 왜 하는지 심도 있게 내보내 줬으면 좋겠습니다.

노인 관련 뉴스와 이어서 <당신은 주인공입니다>에서 은빛동화구연이 나왔었잖아요. 그 은빛이라는 게 노인들이잖아요. 그래서 노인들이 어린이집에 가서 자원봉사 하면서 애들하고 놀아주는 모습이 뉴스로 까지 이어지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은빛동화구연은 참 좋았습니다.

<0시 축제>는 몇 번 얘기했는데 심각한 것입니다. 지난번 대전MBC에서는 무조건 반대를 할 수 없는 게 방송사가 축제 관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쁜 면만을 보도하기가 어렵다고 했지만 잘못된 점들은 보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간을 늘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소상공인들 많이 죽습니다. 지난번에는 7일 이었지만 이번에는 9일이거든요. 한 달에 3분의 1을 자영업자들은 문을 닫으라는 얘기인데 사실 축제는 3일이면 되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강경젓갈 축제나 논산 딸기 축제 등 대부분의 축제들은 금,토,일 3일에 걸쳐 하는데 과연 이게 9일 동안 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리고 낮에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낮에는 교통 약자들을 위해서 차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하고 9일을 정말 해야 된다면 장애인들이나 교통 약자들이 다닐 수 있도록 배려를 하면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손병우 위원장

꼼꼼한 모니터 감사드립니다. 이진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이진희 위원

이번 달에는 총선이 있었는데 총선 보도와 관련돼 전반적으로 너무 많이 애를 쓰셨고 좋은 정보와 또 중립적 입장에서 보도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또 세월호 10주년 있었고 관련 보도들이 있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잊지 않도록 언론에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확인을 했었고요.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이어서 제가 복지 영역이기도 해서 전반적으로 장애인과 약자와 관련된 보도가 무엇이 있었을까 하면서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봤는데요. 윤지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은빛동화구연과 이인복 위원님 말씀하신 장애인 청소년 수시아 합창단 방송은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인생 내컷>에서 씨앗 박물관도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어요. 예산에서 농사지으시던 분이 책도 쓰시고 씨앗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 부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시의 적절하게 청주에서 하신 것 같긴 한데 그 내용도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뉴스에서도 점자와 관련돼서 전자통신연구원에서 개발한 내용들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장애인 스스로가 참여하는 내용들 그리고 스스로의 역량이 개발돼서 뭔가 다른 삶,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내용들도 매우 좋고 또 그런 체험을 하는 것들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초점을 우리가 환경을 조금 더 어떻게 바꿔가는 것 그리고 비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 그런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한다고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손병우 위원장

위원님들의 알찬 모니터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들으면서 박주영 위원님과 윤지석 위원님의 의견에 차이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소상공인지장진흥공단의 이전과 관련해서 어째서 이전하려고 하는지 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하는 내용 가운데에서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구청장 당선자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것 같은데 저 역시도 이사장님이 왜 지역을 옮겨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듣지 못했어요.

이전의 필요성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보도에서 같이 담아줬어야 하지 않은가 그 양쪽의 의견을 그대로 전달할 때 약간 위상이 다른 얘기를 동등하게 전달해 주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같이 1대 1로 대응시켜서 보완해 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대전역이 저녁 기념사진 장소가 된다는 건 대전을 위한 너무 훌륭한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도 학회 회의나 전국에서 대표자들이 모일 때는 반드시 대전역 주변 어딘가에서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 제가 그동안 꾸준히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노잼 도시 대전과 관련해서 노잼이나 꿀잼이나 이런 쪽으로 흘러가기보다는 소비문화에 좀 더 보완을 해서 대전의 매력이란게 효용이나 효능쪽 관련 내용을 발굴해서 전달하는 부분을 프로그램 성격에 맞춰서 해주면 어떨까 생각을 했고요.

대전역이 기념사진터가 된다면 대전은 전국에서 모여드는 만남의 장소 대화의 장소가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학회 회의를 하면서 장소가 회의 성격과 미스 매치가 됐는데요. 대전을 소개하는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대전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대전 여기 모이면 좋습니다. 또 저런 거 할 때는 저 지역에 저런 곳에 모이면 좋습니다. 그렇게 대전의 적합한 장소들을 재미있게 안내해 주는 걸 방송으로 다뤄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저희들의 모니터링 말씀을 드리고요. 대전MBC측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기웅 보도국장

김정동 위원님 그동안 뉴스 관련해서 많은 말씀들 해주셨는데요. 특히 시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의 필요성을 많이 강조해 주셨고 저희가 간과했던 지점들도 많이 지적해 주셔서 불편했지만 정말 아쉽습니다. 앞으로도 사회 활동 하시면서도 좋은 모니터링 잘 부탁드립니다.

4월 총선 보도에서 개표 방송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참여한 선거였고 그 만큼 특히 여야에 관심이 가장 집중되는 지역이 우리지역이고 해마다 충청권이 캐스팅보트라고는 하지만 특히 이쪽에서의 어떤 표심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도 많이 찾아왔었고 또 많은 공약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충청권에 이렇게 공약으로 쏟아질 정도로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 철도 지하화라든지 CTX 문제 말씀해 주셨지만 총선 끝나고 이제는 실천이다 라는 시리즈를 통해서 간단하게 어떤 공약들이 선거기간 동안 우리 충청권에서 있었는지를 짚어보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향후에 그 공약들이 어떻게 정책으로 실현되는지 까지 계속 팔로우하고 취재할 생각입니다.

말 그대로 공약에 그치지 않고 많은 것들이 충청권의 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완성까지도 물론 공약이 있습니다만 실현될 수 있는지를 언론으로서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지켜보고 실천될 수 있는지를 계속 끊임없이 보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위원님 노인도박장 말씀해 주셨는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 날 뉴스에 말씀하신 부분을 보도했는데요. 어르신들이 왜 그런 도박장에 가는지 그냥 말초적으로 보면 도박이 이루어지고 돈이 오고 가고 또 당연히 기업화된 도박꾼들이 존재하고 경각심 차원에서 앞으로 저희가 계속 보도할 부분이지만 어르신들이 왜 이곳에 갈 수 밖에 없는지 그 다음 날 여러 노인들의 말

씀을 들어보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노인복지관에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들이 나오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여러 민간단체들이 많이 도움을 주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도 현실이고요. 실제 건강한 여가를 위한 노인 프로그램들이 부족하다는 것이 저희가 바라보는 지점들의 문제점입니다.

노인복지 예산이 25조인데 그 중에 노인 여가에 쓰이는 예산이 1%도 되지 않습니다. 1% 예산의 대부분도 경로당 시설 지원에 사용되고 있거든요. 실제 여가 문화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은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는 정도가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고령화는 심각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년의 삶의 만족도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들과 필요한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끊임없이 계기성 보도와 기획 보도를 통해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준비하고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집 부분 관련해서 위성을 쓴 건 아니고 대전시가 지역에 있는 위성 기업들의 기술로만 쏘겠다는 얘기인데 과학 분야는 제가 과학기자를 10년 이상 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습니다. 대전이 과학기술의 도시이기도 하고 대덕연구단지가 있기 때문에 근래에는 아이템이 밀리는 것 같은데요. 연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 4월까지 총선 보도에 저희가 집중할 수밖에 없었는데 4월이 과학의 달이기도 하고 대덕 특히 R&D 연구에서 개발 예산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다행히 내년에는 예산을 복원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필두로 해서 다양한 과학계 이슈들 그리고 우주총회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취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영 위원님 말씀하신 투샷 인사하는 부분은 오늘부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도 사실 처음에는 앉아서 하다가 서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2년 정도 도입해서 자연스러운 부분이 많이 생겼는데 원고 처리 등 어색함이 있습니다. 큐카드를 주긴 하는데요. 앉아서 할 때는 클로징 할 때 원고를 뒤적이는 척 하면서 끝나는 시간을 넘기고 했는데 지금은 뽀뽀하길래 서로 마주보고 인사하면서 끝내고 있는데 도입 오프닝 부분도 앵커 멘트를 서로 두 앵커에게 나눠 주고 있는데 그 배분을 자연스럽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에서 제작도 중요하지만 송출까지가 완성이라고 볼 때 편집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날은 이게 바로 메인이다 할 정도로 훌륭한 날이 있고 또 조금 애매한 날이 있습니다. 아이тем들이 약하다고 생각할 때는 어떤 것들을 배치하느냐의 문제들이 고민스러운 지점들이 있는데 말씀하신 과학 부분들을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앞에 배치하는 편집 패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서울 뉴스테스크 중북 부분은 참 고민스럽더라고요. 서울 뉴스테스크는 릴레이 연동이기 때문에 밝은 분들한테는 중복이고 또 안 본 분들한테 우리에게 오늘 가장 중요한 뉴스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매번 급할 때는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웬만해서는 서울에 나간 중요한 뉴스가 다시 지역에 재편집될 때에는 서울에서 안 다뤘던 부분을 보도하려고 노력

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재편집을 해서 함축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편성 전략을 좀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전 문제는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두 차례 무산됐던 이슈거든요. 근데 지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원들로서는 이직률이 30%가 높고 근무환경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고 말씀들 하시기 때문에 정답이 없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원도심에서는 공동화를 부채질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시각들이 있고 또 이름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기 때문에 대전 외라면 더 큰 문제가 되겠지만 대전 내에서 움직이는 거라서 참 고민스러운데 핵심은 대전시가 막을 권한이 없습니다. 중기부 권한이기 때문에 대전시가 중기부를 설득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이전하겠다면 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합리적인 방법들을 모색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에는 물론 언론의 역할이 있다는 건 저희도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재안이랄까요? 그런 부분들을 언론으로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원도심 공동화의 모든 책임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원도심 부흥에 대한 다른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마련하는 게 대전시 역할이기도 하고 그 부분들에 대한 과제들을 앞으로 많이 모색해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대 증원 문제는 그 뿐만 아니라 지역 의료의 문제, 공공의료의 문제, 지역 응급의료의 문제, 저 출생 문제까지 연결돼 있는 많은 이슈들을 갖고 있어서 이 정책에 대해서 정부 간 지역 간의 갈등 얘기가 아니라 지역 의료 복원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정책 이슈로서 다루는 뉴스들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0시 축제>는 작년에 저희가 유일하게 비판 기사를 냈습니다. 저희 행사와 연계된 건 아니고 <0시 축제>가 지역 경제와 연결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비판할 수 없다는 이야기였고요. 다만 축제로 인해 원도심 상권이 마비되는 부분들, 대단한 교통 불편에 대한 부분들, 더군다나 올해 축제가 길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주목하고 취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시 축제>가 옳거나 그르냐에 대한 부분은 쉽게 말할 수 없지만 대전시의 정체성을 가진 축제냐에 대한 부분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0시 축제>가 대전의 정체성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인가에 대한 이슈까지 이어지도록 저희가 축제 즈음에서 취재와 재원들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희 위원님 복지 관련 말씀해 주셨는데 과학기술을 통한 복지기술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편리한 기술들이 상당히 많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노인 근력

보조를 위한 로봇 기술들을 소개하는 등 복지 기술 관련 기획 보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련 뉴스들을 많이 마련하고자 합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이슈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갈등의 이슈로서가 아니라 중재해 볼 수 있는 대안으로서의 어떤 해법들 그리고 원도심 해법에 대한 근본적 접근 방식이 어떤 것들이 있는 지에 대한 뉴스들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역 말씀해 주셨는데 그 걸 저희가 쏙으로 만들어서 아주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100만 건을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의 정체성에 대한 것들도 저희가 뉴스로 항상 개발하고 최근에는 유튜브에 집중하기 시작했거든요. 지난 3년간 늘어난 구독자 수의 100%를 3개월 안에 달성했습니다. 최근에 대전MBC 뉴스 유튜브도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다양한 형태의 유튜브 오리지널 독자적 콘텐츠도 개발하려고 시도할 생각입니다. 유튜브를 바탕으로 해서 얻은 대전MBC 뉴스에 대한 관심들이 뉴스데스크 뉴스투데이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같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우 위원장

오늘 위원님들이 뉴스 아이템을 많이 질문하셔서 부담되시겠다고 생각했는데 최 국장님이 대전과 관련한 이슈를 말씀해 주셔서 정리가 짝 되는데요.

이상욱 편성국장

시청자위원회의 빛과 소금이 돼주신 김정동 위원님의 임기가 만료돼서 아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는 인사말씀 먼저 드리고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저희가 수시아 청소년 합창단 그리고 루아 오케스트라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루아 오케스트라는 충북 아이팀이긴 한데 저희 제작진이 교류를 하면서 시기에 맞게 제작을 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니어 PD의 경우 장애인의 달이니까 장애인 관련된 아이템을 하는 건 루틴이고 식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찌 생각하면 공영방송에서 장애인의 달에 이렇게라도 해서 소외계층이나 약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나 환기를 시킬 수 있는 계기성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달려들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연중 캠페인도 마찬가지고, <인생 내컷> 루아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로 맥락이라고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인복 위원님 6개월 정도 전부터 계속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림 선물 합시다' 캠페인은 잠깐 있고 있었는데 심각하게 다시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정말 서주석 실장과 같이 심각하게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석 위원님 말씀하신 <오늘M>방송된 대전시 방치된 대형 건축물 문제는 한 두 해 된 얘기가 아니고, 원도심 메가시티 같은 경우는 거의 16년째 이어지고 있는 문제라서 저희 제작진도

실제 취재하고 난 다음에도 진짜 해법이 뭔지를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각자의 이해관계, 각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측면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지속적으로 후속 취재할 거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는 타 지역 대도시 사례들도 취재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대전시 같은 경우는 2년 이상 공사가 방치된 대형 건축물이 12곳 정도가 되더라고요. 장기적으로 도시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사회 문제가 될 수 있고 첫 번째 해결이 선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바라보고 있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후속 취재가 가능하면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석 위원

대전시에서 대전시립병원 지으려고 계속 생각중인데 저는 대전시립의료원도 괜찮지 않을까 의요인으로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상욱 편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희 위원님 말씀하신 씨앗 박물관 관장님은 저희가 <인생 내컷>을 제작하면 공동 제작이기 때문에 방향성 등 서로 간에 차이가 있는데 씨앗 박물관은 되게 보람을 느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하고 있지만 잘 소개되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방송에서는 다른 상업 매체들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을 발굴해 시청자분들께 소개해서 그런 삶을 바라보고 느낄 수 있게 지속적으로 소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우 위원장님 말씀하신 노잼 도시는 논의한 게 한 두 해가 아니라서 같은 질문에 같은 답변을 드리는 게 계속 반복되는 느낌이긴 한데 이것도 저희가 장기 과제로 갖고 갈 수 있게 지속적으로 자극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병우 위원장

이번에는 노잼 관련 이라기보다는요. 대전에 뭔가 전국적으로 와서 모일 수 있는 장소들 그런 기능별로 안내가 되는 아이템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얘기였습니다.

이은표 간사

사측에서 답변을 했는데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죠. 특별히 없으시면 손병우 위원장님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고 사장님 말씀으로 끝내겠습니다.

손병우 위원장

봄이 완연해 저서 그런지 위원님들께서도 알찬 모니터링 많이 해주셨고요. 또 회사를 대표해서 국장님들께서도 좋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시청자위원회가 이런 알찬 대화와 토론을 통

해서 더 나은 대전MBC를 위한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종재 사장

위원님들 말씀 듣고 1시간 정도 지났는데 정말 알차게 위원회의 의견 개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가 지역 방송사다 보니까 지역 현안에 대한 여러 말씀을 반추해보면 그나마 저희가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인상을 주는 정도까지 평가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 또 개인적으로 그런 자체 평가도 해봤습니다.

저는 대전에 연고가 없는 사람입니다.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 도시인건 틀림없는데 말씀하셨듯이 여기 계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한 달 보름 지나면서 박주영 위원님 말씀하신 과학의 도시, 또 이인복 위원님 말씀하신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 예술의전당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대전 분들이 느끼지 못하는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많이 있는 걸 보고 저는 외지인으로서 놀랐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잘 구현해 볼 수 있도록, 또 전국적으로 대전과 충남 지역을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사실 부족한 인원을 가지고 총선 보도도 하고 제작도 하고 공동 제작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한된 상황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혹시 기회가 되시면 격려도 해 주시고 많은 의견도 제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너무 좋은 의견들과 관심만큼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표 간사

이상으로 4월 시청자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